

3월 10일(화) 석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월 10일(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정형식 과장 (02-6000-5302)

조상현 실장 (02-6000-5383)

## 무협,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Innobranch)’ 가동

— 8000개 스타트업, 50개 대·중견기업 네트워크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국내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동시 지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0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출 및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노브랜치(Innobranch)’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노브랜치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국내 대·중견기업과 국내외 스타트업 간 양방향 협력 수요를 매칭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대·중견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과제를 등록하면 관심 있는 스타트업이 참가 신청, 선정결과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8000개의 스타트업과 50개 투자기관 및 대·중견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칭 신청은 이노브랜치 홈페이지([www.innobranch.com](http://www.innobranch.com))에서 가능하다.

이에 앞서 무역협회는 지난해 6월 삼성동 코엑스에 스타트업 브랜치를 개소하고 BMW, 샤넬, 동원그룹 등 국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협력의사가 있어도 시간과 장소의 한계로 만나지 못하는 사례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간 만남이 더욱 어려워지자 온라인 플랫폼인 이노브랜치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협회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옴니채널을 구축하게 됐다.

무역협회 이동기 혁신성장본부장은 “대면 만남이 어려운 지금 스타트업 브랜치의 인터넷 속도 향상, 화상회의 플랫폼 도입 등 인프라를 개선해 코로나19 여파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이노브랜치 개요 1부. 끝.

## <붙임> 이노브랜치(Innobranch) 개요

명 칭

Innobranch

『 Innobranch.com 』

- Innovation + Branch 의미로 오픈이노베이션을 연결한다는 의미

컨 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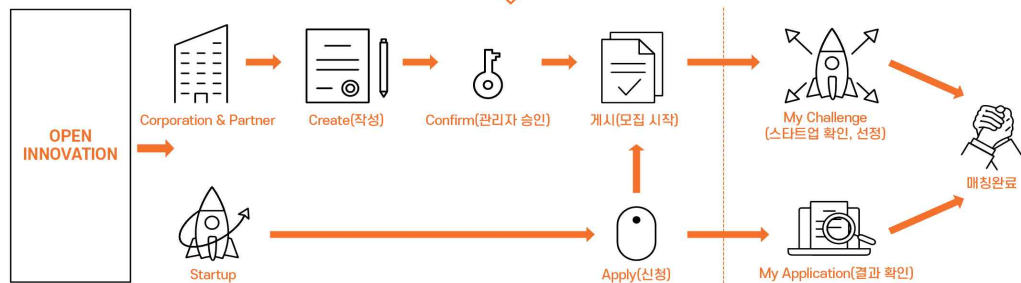
해외 대/중견기업 ↔ 국내 스타트업, 국내 대/중견기업 ↔ 해외 스타트업 간 양방향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 플랫폼



기 능

### INNOVATION CHALLENGE

국내외 대·중견기업이 게시하고 스타트업이 신청하는 매칭 시스템 → 오픈 이노베이션



## □ 이노베이션 챌린지 화면(캡처)

